

〈자유연제 V 15:20 ~ 16:10〉

천안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40대 이상 성인의 견관절통의 유병율

Prevalence rate of shoulder pain over 40 years around Chonan rural area

박진영 · 민병삼 · 김명호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서론 : 최근 사회 발전에 따른 평균 수명의 증가로 견관절 주위부의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빈도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본 교실에서는 천안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40대 이상의 성인 253명을 대상으로 역학조사하여, 이 중 견관절통을 호소하는 110명에 대한 연령 추이 및 남녀 성에 따른 증상 및 이학적 검사를 조사, 분석하여 견관절통의 유병율을 보고하고자 한다.

연구대상 및 방법 : 연구 대상은 1997년 9월 단국대학교 의료원의 의료 봉사 활동시기에 진찰한 천안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40대 이상의 성인 25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남자가 93명, 여자가 160명 이었으며, 연령분포는 40세에서 88세 까지로 평균연령의 65세 였다. 연구 방법은 미국 견관절학회와 문진 및 이학적 검사표를 변형하여 환자의 자가 평가를 설문조사 하였고, 견관절의 운동 범위, 근력 평가의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였다. 통계학적 검사는 t 검정을 시행 하였다.

결과 : 견관절통은 43%, 야간 동통은 33%에서 호소하였고, 평균 통증 점수는 2.1 (범위: 0-10) 이었다. 자가 평가에서 불편을 호소한 환자는 55%였고, 10 개항목중 5 Kg의 물건을 어깨위로 들기, 머리위로 공 던지기, 높은 선반에 손 올리기가 가장 나쁜 평균 점수를 보였다.

견관절 통의 유병율은 여자(48%)로 남성(33%)보다 높았다. 여자의 통증(평균: 2.5)이 남자의 통증(평균: 1.6) 보다 심했으며, 아픈 쪽으로 누워자기, 등 씻기, 화장실 가기, 머리 빗기, 높은선반에 손 올리기. 무거운 물건 들기가 여자에서 심한 기능 감소를 보였다. 견관절 관절 범위는 여성이 외회전과 내회전에서 의미 있는 감소를 보였다.

연령에 따른 견관절통, 야간통의 유별을 및 동통의 정도는 연령별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지 않았다. 자가 평가는 연령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관절 운동범위는 전방거상 및 외회전에서 연령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내었으나, 통계학적인 차이는 없었다.

결론 : 견관절통은 모든 고령 인구에서 호발하는 증상으로, 예방의학 및 치료의학의 적극적인 인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